

전체 주제:

하나님의 뜻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행함

성경: 요일 2:17, 마 7:21, 벰전 1:17, 2:24, 5:6-7, 10, 갈 6:10, 15-16

I.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 마 7:21, 12:50.

A.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함니다.” — 요일 2:17.

1.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 요일 2:15-16.

a. 긍정적인 방면에서 우리에게서 아버지와 그분의 뜻이 있다.

b. 부정적인 방면에서 우리에게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다.

2. 우리는 단지 가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야 한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행하다’에 대한 헬리어 동사가 (어떤 것들 안에) 거함으로 써 (어떤 것들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나타나 있다.

B. 다가올 시대에 천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 — 마 7:21-23, 6:10, 12:50, 계 4:11, 롬 12:2, 엡 1:5, 9, 11, 5:17, 골 1:9, 4:12.

1. 왕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한다. 사실상 왕국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 마 6:10.

2. 천국 헌법의 궁극적인 결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 마 7:21.

3. 왕국 백성인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있다 — 마 7:21, 12:50.

4.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 비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 마 7:13-14.

a. 좁은 문은 옛사람과 자아와 육체와 인간의 관념과 세상과 그 모든 영광을 제외시킨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만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

b. 우리는 비좁은 길을 걷는 동안, 비밀하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통제에 의해 제한을 받으며 이 통제 아래서 산다.

5.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주 예수님의 친척이다 — 마 12:50.

a. 하늘에 속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숙명으로 받아들이셨으며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않으셨다 — 마 11:28-30, 26:39.

b.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을 돕는 형제이고, 그분을 동정하는 누이이며, 그분을 다정하게 사랑하는 어머니이다.

6. 아버지의 영원한 뜻은 반석이신 아들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 마 16:18, 엡 2:21-22, 4:16.

II.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 — 뵤전 1:17, 2:24, 5:6-7, 10.

- A.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들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로 묶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서 함께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 뵤전 1:17, 2:21, 24, 3:15, 4:17, 5:5-8.
1.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 준다 — 뵤전 1:2.
 2.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뵤후 1:1-4, 3:13.
 3.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뵤전 1:17, 4:17.
 4.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현재의, 매일의 심판이다.
 5.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매일의 심판 아래 있다 — 뵤전 1:17.
- B.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 — 요 3:15, 1:12-13, 뵤전 4:13-19, 5:6-7.
1. 베드로의 서신서들은 많은 고난을 통해 집행되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을 우리가 능히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 뵤전 1:6-8, 2:3-4, 19, 21-25, 3:18, 22, 4:1, 15-16, 5:8-9.
 2.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죄들을 향하여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를 향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 뵤전 2:24.
 - a. 의를 향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요구들을 충족하는 것이다 — 뵤전 2:24.
 - b.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운 요구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 시 89:14, 마 5:6, 10.
 3.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 뵤전 5:6.
 - a.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을 가리킨다 — 뵤전 1:17, 4:17.
 - b.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운행에 협력하여,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 — 뵤전 5:6.
 4.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 뵤전 5:7.
 5. 우리는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한다 — 뵤전 4:19.
 - a.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보존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애정 어린 신실한 돌보심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 안에 있는 공평함과 더불어 수행된다.
 - b.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신다. 우리는 그분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의 혼을 우리의 창조주의 신실한 돌보심에 맡겨야 한다 — 마 10:28-30, 11:28-29.
 6.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동안,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 — 뵤전 5:10.

III.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결과로 하나님의 이

스라엘인 교회가 산출된다 — 갈 6:10, 15-16.

- A.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다. 참이스라엘, 곧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이다 — 엡 1:5, 히 2:10, 롬 8:14, 19, 갈 3:26, 4:6-7, 6:16, 마 16:18.
- B.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기 위해 그러한 이스라엘, 곧 왕자가 되어야 한다 — 마 6:9-10.
- C.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족이자 새 창조물인 그리스도 안의 많은 믿는 이들을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간주했다 — 갈 6:10, 15-16, 3:7, 29.
- D.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다 — 갈 3:26, 6:16.
 - 1.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되었다 — 갈 6:10.
 - 2. 우리는 미래의 왕들, 곧 왕이 될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다. 왕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 — 계 5:10.
 - 3.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이다 — 계 21:7, 22:5하, 12:5상.
- E.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며 그분의 행정을 수행한다 — 창 1:26, 28, 눅 10:19, 계 12:5, 7-11.
 - 1.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이 그분의 피조물인 ‘사탄’을 처리하여 이 땅을 그분께 되돌려주기를 원하신다 — 시 149:7-9.
 - 2.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며 사탄에게 해를 입히는, 그분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시다 — 창 1:26.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요 5:30)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을 구하거나 따르거나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며 성취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기도했고 이제 그들이 어떤 장소로 가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가 참으로 자신의 뜻을 구하거나 따르거나 성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며 성취하고 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 그분께 자신을 헌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고, 일들을 자기 수중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 주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러한 분이셨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나사렛 사람 예

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자기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다. 비록 그분은 하나님과 하
나이셨고 동등하셨지만, 기꺼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의 위치에 서
계셨다. 모든 일 가운데서 그분은 오직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만 구하셨고 자기 자신의 뜻은 구하지 않으셨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의미이다.

“오, 하나님,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히 10:7)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경에 기
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속한 어떤 실행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은 그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 전체를 계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분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또한 그분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원칙적으
로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즉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
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알고 각각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대해 원칙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원하는 이들은 성경에 대해 느낀할 수 없고, 반드시 많은 시간을 들여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몇 차례 기도하고 나서 이러저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한
방식은 신뢰할 수 없고 매우 위험하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의견에 쉽게 속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에 사로잡힌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의견과 생각과 관점을 성경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받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내가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복되기를 기꺼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것을 제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
에게 그분의 뜻을 상세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하나님은 단지 원칙적으로만 계시해 주신
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이가 믿지 않는 이와 함께 명예를 메지 말아야 한다는 큰 원칙을 담
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원칙과 관련된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 우리
는 믿는 이인 형제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고, 믿는 이인 자매가 믿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눅 22:42)

겻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이제 막 배반당하고 죽음당하려고 하실 때, 그분은 이러한 말씀으로 기도
하셨다.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 기도를 세 번 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이 그분께서 십자가에
서 죽으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순종하셨다. 우리가 고난을 받든, 주님을
위해 죽든, 혹은 심지어 순교하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호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순교하기를 열성적으로 자원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자아의 성향과 즐거움에 따른 것은 무엇이든 하나
님의 뜻으로 여겨질 수 없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셨
을 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잔을 기꺼이 마시셨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18:11)

이 절에서 아버지의 잔은 그 모든 고통을 포함한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잔
을 주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마시는 것을 거절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비록 주님
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지만,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선호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

해 준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잔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재어 주신 몫이었다. 그 잔을 받으심으로써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본보기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꼭 그렇게 재어 주지는 않으셨다. 따라서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능력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선한 것이나 심지어 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영적이다. 반면에 선하거나 영적인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재어 주신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선하고 영적인 어떤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재어 주신 것이어야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어야 한다. 심지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재어 주신 것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지나친 일일 수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재어 주시고 지정해 주신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어 주시고 지정해 주신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죄를 처리하고 모든 불법과 불의를 없애 버려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 해서 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가 하도록 재어 주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할 때, 우리의 표준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표준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친절히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노예들이 되어 그분의 지시를 받고, 어떤 것도 자신의 의견이나 다른 이들의 견해에 따라 결정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어떤 것이 주님의 갈망에 따른 것이라면, 비록 다른 이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각에도 그것이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형제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한 표준이시고, 그분의 의도가 유일한 규칙이다. 선함이나 도덕성은 기준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선호나 인간적인 관점은 결정 요인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 아래 살거나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만 하나님의 빛 비춤과 통치 아래서 살아야 한다.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마 16:23-24)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곧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는 것이다. 이 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기 위한 요구 조건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25절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혼생명을 잃는 것이 서로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이는 혼, 혹은 혼생명이다. 우리 혼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다. 혼은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느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혼에 속한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 곧 우리 자신의 관점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뜻 곧 우리 자신의 결정을 부인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감정 곧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관점, 의지, 결정, 성향, 선호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부인하고 거절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마 16:22)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23절)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염려와 주님에 대한 사랑 안에는 사탄의 요소가 있었다. 사탄은 사람들의 자아에서 나온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데, 자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못하도록 막는다. 오히려 사탄은 그들의 생각을 사람의 일에 두게 한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사탄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한다. 사탄은 좋은 것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고 그 의견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런 다음에 사람의 자아를 요동시켜서 자아가 활동적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특별히 선한 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버리며, 우리 자신의 뜻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신다.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뜻을 전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역할을 할 뿐이다. 사탄은 선한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아, 곧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관점과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 혹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난을 받는 것이 심지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난을 받는 것, 특별히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때때로 우리 자신의 뜻이나 선호나 선택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 주신 것이나 우리에게 재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자아에서 온 것이다. 참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혼생명을 죽인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자아를 고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죽음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 십자가의 목표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을 시인해야 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위치에 서서 의지와 관점과 선호와 선택을 포함한 우리의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롬 12:2)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분별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살펴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의 위치에 서 있고, 이 시대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느낌과 우리의 환경의 상태를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은 어떤 일들의 동기와 목적과 본성을 분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의 실제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고, 절대적으로 이 시대의 바깥 편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들과 원칙들과 본보기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재어 보고 분별해야 하며,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느낌을 사용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를 시험하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환경이 확증해주는지의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기꺼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 알게 될 것입니다.”(요 7:17)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결심하거나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려는 마음을 지녀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

하려는 마음도 지녀야 한다. 하나님은 이해하려는 마음을 지니지 않은 사람에게 기꺼이 그분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분의 뜻을 계시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려는 마음을 모두 지닌 사람들만이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뜻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결심을 해야 한다.(성경의 중점 진리, 2권, 248-256, 260-262쪽)